

‘녹두꽃’ 주인공 아닌 평범한 전봉준을 만난다

SBS TV ‘사람, 하늘이 되다’ 26일 첫 방송 ‘동학운동’ 다룬 정통 사극 조정석·윤시윤 등 출연

“2019년 대한민국에서 젊은이들이 겪는 분노와 좌절, 그리고 그걸 딛고 일어설 희망에 대한 얘기를 그려보고 싶습니다.”

SBS TV ‘열혈사제’ 후속으로 오는 26일 방송 예정인 ‘녹두꽃 - 사람, 하늘이 되다’(이하 ‘녹두꽃’)는 SBS가 오랜만에 내놓는 정통 사극이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농민군과 토벌대로 갈라져 싸워야 했던 이복형제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룬 드라마로, 배우 조정석과 윤시윤이 이복형제 백이강, 백이현으로 각각 분한다.

연출을 맡은 신경수 PD는 17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목동 SBS 사옥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드라마 기획 의도에 대해 “작년부터 작가님과 회의를 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해에 전라북도 고부 이방 가문의 두 형제 얘기를 찾게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신 PD는 “역사적인 배경은 배경이고 사실 저허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젊은이들의 사랑과 분노를 넘어서는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다. 선대의 젊은이들이 겪은 분투와 좌절, 새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도약에 관한 얘기가 우리 시대에 깊은 희망과 울림, 격려를 던져줬으면 좋겠

다”고 설명했다. 동학농민운동을 전면으로 다룬 최초의 드라마이면서 동학농민운동의 상징적인 인물 ‘녹두장군’ 전봉준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신 PD는 “사실 전봉준을 전면에 내세워서 드라마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저허도 있었다”며 “그래서 두 달 정도 실제 작업을 하기도 했는데,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전봉준에 묶일 것 같아 바꾼 것도 있고, 결국 우리가 그리고 싶었던 건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대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며 “또 전봉준이 주인공이 되면 드라마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아서 역사를 정주행하는 느낌이 줄 수 있겠지만 드라마가 편협해질 위험도 있었다”고 밝혔다.

‘녹두꽃’ 대본은 KBS 1TV 대하사극 ‘정도전’(2014)을 집필한 정현민 작가가 맡았다. 신 PD는 정 작가에 대해 “방대하면서도 치밀한 사료 연구를 토대로 대본을 주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고 왜곡된 것도 많은데 일본, 조선, 청나라 등 여러 역사 주체가 작성한 기록 중에서 가장 객관적이면서 안전한 정보를 갖고 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역사 고증에 맞게끔 캐스팅을 하려고 노력했고 미술이라든지 연기의 톤 등도 실제 인물에 맞게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역사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서 꿈을 대는 전봉준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26일 밤 10시 첫 방송. /연합뉴스



/연합뉴스

짜장면·짬뽕 미국서도 통할까?

tvN ‘현지먹3’ 오늘 첫 방송 이연복 “세계 진출할 음식”

이연복 셰프의 짜장면은 중국 본토에 이어 미국 현지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까.

이 셰프는 지난 16일 오후 영등포구 여의도 컨벤션호텔에서 열린 ‘현지에서 먹힐까? 미국편’(이하 ‘현지먹3’) 제작발표회에서 “짜장면은 세계로 도전해도 될 음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회엔 이연복, 에릭, 이민우, 허경환, 존 박, 이우형 PD 등이 세월호 5주기 추모의 의미로 노란 배지를 단 채 참석했다.

‘현지먹3’은 특정 국가 음식 전문가로 알려진 셰프와 연예인들이 해외로 나가 직접 푸드트럭을 차리고 현지인들의 입맛 저격에 나서는 과정을 담은 예능 프로그램이다.

시즌1에선 홍석천과 이민우, 여진구가 태국으로, 시즌2에선 이연복과 김강우, 서은수, 허경환 등이 중국으로 향했다.

‘현지먹3’ 중국편에 이어 시즌3 1회인 미국편에도 출연한 이 셰프는 양식 셰프가 아니라 자신이 캐스팅된 배경에 대해 “한국에서 파는 중식은 중식이라고 얘기하기 애매모호하다. 한식화한 중식인데, 한국에서 먹는 음식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다”고 설명했다.



이연복 셰프

명하면서 “세계에 한국 음식을 널리 알리는 뜻깊은 일이었다”고 밝혔다.

이 셰프는 이번 시즌에서 그의 특기인 중식뿐 아니라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코리아 소울푸드’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tvN 예능 ‘삼시세끼’에서 이미 뛰어난 요리실력을 증명해 온 에릭은 “그동안 여러 프로그램에서 음식을 해보며 일반인 입장에서 흥미를 많이 냈는데 이번엔 이연복 대가 옆에서 칼질과 주방일 등 기본기를 배웠다”고 밝혔다. 오늘 밤 11시 첫 방송. /연합뉴스



윤도현

“윤도현 KBS 프로 하차가 블랙리스트 시발점”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진행자 동시 교체 사건’ 보고서 채택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가 2008년 가수 윤도현이 TV와 라디오 진행자에서 동시 하차한 게 ‘블랙리스트 사건’의 시발점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진미위는 “TV·라디오의 특정 진행자 동시 교체 사건” 조사보고서를 채택,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진미위는 2008년 8월 정연주 KBS 사장 해임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면서 이병삼 사장이 취임했으며, 이후 첫 개편

부터 다수 외부 MC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교체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윤도현은 KBS 2TV ‘윤도현의 러브레터’와 KBS2FM ‘윤도현의 뮤직쇼’에서 하차했고,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는 KBS 1TV ‘심야토크’와 KBS1라디오 ‘열린토론’ 진행자 자리에서 내려왔다.

또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가 KBS 1라디오 ‘박인규의 집종인터뷰’에서, 배우 정한용은 KBS2라디오 ‘정한용의 시사터치’에서, 방송인 김구라가 KBS2라디오 ‘김구라 이윤석의 오징어’에서 하차했다. 진미위는 또 이들의 하차 과정이 비정상적 절차를 밟았으며, 국가정보원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연합뉴스

정형돈-안정환의 JTBC ‘취준생활’ 내달 방송

JTBC는 다음 달 중세 예능 ‘취준중 리얼라이프-취준생활’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취준생활’은 연예인들이 ‘직장인 취미 모임’에 가입해 동호회 회원들과 우정을 쌓는 과정을 다룬 예능이다. 스타가 직접 동호회 회원들과 소통하며 서로의 취향을 공유하

고 친구가 되는 과정을 그려낸다. MC로는 개그맨 정형돈,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안정환, 아이즈원 권은비, 아나운서 장성규가 나선다.

또 출연진으로는 배우 재정안, 이시영, 조재운, 이연복 셰프가 낙점됐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더 벵커(재)	10 SBS 뉴스 20 SBS 생활경제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제39회 장애인 날 기념식 40 팔도밥상 스페셜	00 원소잡이 아내(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50 장애인 날 특집드라마 오늘도 안녕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특목 보형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어사 콩도령 2		25 푸르기 식사교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20 드래곤에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5 자동차부착식 위키 2 30 TV 유치원	25 MBC스포츠 2019 전국 초등 축구리그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35 침착한 주말 X 마리텔 V2(재) 55 전국시대	00 2019 한국인명방송대상 최우수상 수상작 슬로우다큐, 강원도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또봇 V 15 보토스 패밀리 30 주간연예수첩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55 2019 한국인명방송대상 대상 수상작 풍경라디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55 닥터 365
[7]	00 KBS 뉴스7 40 한국인의 밥상	50 원소잡이 아내	30 MBC 뉴스데스크	00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55 SBS 8 뉴스
[8]	30 비켜라 운명(재)	30 글로벌24 55 닥터 프리즈너(재)	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룬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뜨고 지는 길, 그 물락과 부활) 55 오늘밤 김제동	00 닥터 프리즈너	00 더 벵커	00 빅이슈
[11]	35 UHD 습터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10 색선 TV 연예통신 1~2부	10 가로제널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20 스포츠 다이어리 35 문화사색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15 두다다쿵
05:30 통일의 길	12:00 EBS 정오뉴스	17:30 뽀뽀뽀 뽀로로
06:00 한국기행(재)	12:1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18:0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	13:00 지식채널e	19:00 원더볼즈(재)
07:00 레전드이어로 삼국전	13:10 최고의 요리비결 (매콤 제육버거)	19:30 EBS 뉴스
07:30 출동! 슈퍼핑크	13:40 기획특강-지식의 기쁨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8:00 당동당 유치원1~2	14:30 엠버와 함께 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미니특공대 X	14:4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세상 멋진 동물과 고원 기행 4부 (미지의 땅 부문마투우)
08:45 람랄라 뿌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9:00 두다다쿵	15:15 출동! 파자마 삼총사	〈장터에서 놀아보자, 한판 4부 사랑방 손님과 원장님〉
09:30 몰랑	15:4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21:50 다큐 시선
09:40 다문화 고부 열선 스페셜	16:15 출동! 슈퍼핑크	22:45 다문화 고부 열선
10:30 한국기행(재)	16:30 람랄라 뿌우(재)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왕갈비맛 치킨)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6년생 진행과 정지 간에 한계가 분명해야 한다. 48년생 열심히 해 놓으면 머지않아 요긴하게 쓰이리라. 60년생 폭넓은 안목과 식견이 길진을 부르리라. 72년생 검증되지 않은 것에 대한 확신은 위험하다. 84년생 급박한 국면이니 속전속결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28, 29

37년생 부담감을 느낀다면 자제하는 것이 알차다. 49년생 지나치게 맹신하다가 잃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61년생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73년생 첨예한 논란에 휩싸일 수다. 85년생 취지는 좋으나 실행의 방안에 문제가 있다. 행운의 숫자 : 88, 38

38년생 탄력이 없을 때 집중적으로 추진하자. 50년생 성취하게 되어 있다. 62년생 한 가지를 해결하고 나면 연쇄적으로 풀리게 되어 있다. 74년생 고생한 만큼 비례한 대가가 주어지리라. 86년생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순조로움을 이끌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0, 98

39년생 자신감을 가져라. 51년생 안전하지 못한 양태이니 방지하지 말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63년생 때가 이르니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75년생 내태하다가 수습하기가 어려워진다. 87년생 변화무쌍한 대국을 이루고 있으니 동선에 주목하라. 행운의 숫자 : 42, 22

40년생 전과 똑같다. 52년생 기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눈여겨보아라. 64년생 드러나지 않은 범위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라. 76년생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사극에 전념하는 것이 옳다. 88년생 궁극적인 성사를 이끄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행운의 숫자 : 86, 55

41년생 훨씬 나은 쪽으로 변경되는 판국이다. 53년생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순탄함을 낳을 것이다. 65년생 무조건 밀어붙이기만 하면 모두 이루어지겠다. 77년생 미래를 향한 투자가 된다. 89년생 호기심의 갈증을 더하는 비밀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8, 96

4월 18일(음 3월 14일 乙酉)

36년생 진행과 정지 간에 한계가 분명해야 한다. 48년생 열심히 해 놓으면 머지않아 요긴하게 쓰이리라. 60년생 폭넓은 안목과 식견이 길진을 부르리라. 72년생 검증되지 않은 것에 대한 확신은 위험하다. 84년생 급박한 국면이니 속전속결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28, 29

37년생 부담감을 느낀다면 자제하는 것이 알차다. 49년생 지나치게 맹신하다가 잃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61년생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73년생 첨예한 논란에 휩싸일 수다. 85년생 취지는 좋으나 실행의 방안에 문제가 있다. 행운의 숫자 : 88, 38

38년생 탄력이 없을 때 집중적으로 추진하자. 50년생 성취하게 되어 있다. 62년생 한 가지를 해결하고 나면 연쇄적으로 풀리게 되어 있다. 74년생 고생한 만큼 비례한 대가가 주어지리라. 86년생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순조로움을 이끌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0, 98

39년생 자신감을 가져라. 51년생 안전하지 못한 양태이니 방지하지 말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63년생 때가 이르니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75년생 내태하다가 수습하기가 어려워진다. 87년생 변화무쌍한 대국을 이루고 있으니 동선에 주목하라. 행운의 숫자 : 42, 22

40년생 전과 똑같다. 52년생 기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눈여겨보아라. 64년생 드러나지 않은 범위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라. 76년생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사극에 전념하는 것이 옳다. 88년생 궁극적인 성사를 이끄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행운의 숫자 : 86, 55

41년생 훨씬 나은 쪽으로 변경되는 판국이다. 53년생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순탄함을 낳을 것이다. 65년생 무조건 밀어붙이기만 하면 모두 이루어지겠다. 77년생 미래를 향한 투자가 된다. 89년생 호기심의 갈증을 더하는 비밀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8, 96

42년생 소소한 것은 차치하고 주된 가치에 충실 하라. 54년생 국지적인 것 보다 전체적인 것의 관심이 요구된다. 66년생 미연에 방지해야만 한다. 78년생 부담감을 느낀다면 자제하는 것이 알차다. 90년생 외관에 이끌리면 대체를 가능하게 함들어진다. 행운의 숫자 : 89, 18

43년생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55년생 희구한다면 실제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 67년생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자제하자. 79년생 소문나지 않게 처리함이 백 번 나은 것이다. 91년생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에 따라 천양지차가 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9, 14

44년생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다. 56년생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임해야 속이 편할 것이다. 68년생 보고도 못 분체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체 해야 한다. 80년생 비웃는 한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다. 92년생 절대로 간단하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56, 52

45년생 우연의 일치로 인해서 추진하는 일이 순조롭다. 57년생 좋은 일이 더 많이 발생하리라. 69년생 용호상박의 치열한 경쟁이 보인다. 81년생 대마루판이 될 것이니 최선을 다해야 재앙을 피할 수 있다. 93년생 사소한 것으로 무너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0, 62

46년생 행간의 의미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46년생 능력에 맞게 임하라. 58년생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확실 히 벗어나야만 한다. 76년생 대마루판이 될 것이니 최선을 다 하여야만 한다. 82년생 사려 깊은 선택과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96, 15

47년생 중재대한 일이 벌어지는 날이다. 47년생 갈림길에 서게 되리라. 59년생 화를 자초할 수 있는 우는 범하지 않게 주의하라. 71년생 내버려둬도 다 알려지 게 되어 있다. 83년생 마음만으로는 유한하니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72, 12